

고대의 외교: 대륙과의 교류

아키타 성은 바다와 가까워 국제적 외교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마토 정권과 다른 아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는 선물을 가지고 대륙을 오가는 대규모 사절단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아키타 성은 고대 왕국 발해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곳이었습니다. 발해는 당시 만주, 외만주, 한반도 북부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발해 사절단은 727년부터 795년까지 6 차례에 걸쳐 데와(手羽) 지역에 상륙하여 아키타 성에 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이들은 야마토 정권의 대표자와 만나기 위해 남쪽에 있는 나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키타 성터의 발굴조사에서는 외교 사절단이 머문 것으로 보이는 장소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식 위생 설비였던 수세식 화장실 터가 성터의 바로 동쪽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배수구에서 검출된 유기물에서는 돼지고기에만 기생하는 갈고리촌충(기생충의 일종)의 알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대륙에서는 요리에 돼지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외국의 사신들이 이 지역의 절을 영빈관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또한 이 화장실은 외교 관계가 활발했던 8 세기에 지어져 발해가 사절단 파견을 중지한 9 세기에 철거되었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가설을 뒷받침해 줍니다.